

# 윤리위원회 없는 의료기관 연명으로 중단 가능

행정·재정상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도 앞으로 연명으로 중단 때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전국 8개 권역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의료인 2명 이상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이런 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위탁할 수 있는 장치다.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지난달 3일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됐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 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결정 회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 재정상 윤리위원회 설치 어려우면 공용윤리위서 결정

### 복지부, 전국 8개 권역에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와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간 400만 원이며 심의 팀 건당 30만원씩 내야 한다.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에선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가 열린다.

회 운영계획 설명회가 열린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시



대형 연등에 소원 적는 불자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인 22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총림 동화사를 찾은 불자들이 대형 연등에 각자의 소원을 적고 있다.

##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

### 가해자 8명 중 6명 구속...폭력조직 활동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일행을 집단 폭행한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술자리 직후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을 집단 폭행하고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B(26)·C(25)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D(31)씨 일행 3명과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투던 중 D씨 등 2명을 둔기·주먹·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범행에 참여한 혐의다.

D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 일행이 먼저 부른 택시에 A씨 일행 중 1명이 여자친구를 먼저 태워 보내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5명은 주먹을 휘두른 직후 도로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간 D씨를 쫓아가 둔기로 2차례 내리치고 온 몸을 수습해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D씨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혐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보강수사를 통해 A씨와 B·C씨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B·C씨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인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일행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 일행 8명 모두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지역 모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B·C씨가 같

은 일행 5명을 말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영상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후 교묘하게 폭행을 하거나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B·C씨에 대해서는 영상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씨 등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술집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지검에 전달했다.

임형택 기자



## 여수 돌산대교 투신 남성 숨진 채 발견

여수시 돌산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여수시 돌산을 한 조선소 앞 해상에서 A(45)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조선소 관계자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6시44분께 돌산대교에서 한 남성이 바다로 뛰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해경구조대, 민간자율구조선과 수색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살고 있던 지역 내 한 고시원을 나신 뒤 행방이 묘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씨의 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 한 주택서 6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21일 오후 4시10분께 화순군 이양면 한 주택에서 A(67) 씨와 부인 B(60)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웃 주민은 반찬을 전해주러 갔다가 숨져 있는 부부를 발견했다 고 경찰에 말했다.

A 씨는 부엌 쪽에 쓰러져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B 씨는 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 영화관에서 팝콘기계 타 98명 대피소동

나주시 한 영화관에서 팝콘기계에 든 재료가 타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1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께 나주시 빗가람동 모 영화관 4층 매표소에서 한 직원이 팝콘기계에 든 재료와 팝콘 일부가 타면서 연기가 난 사실을 파악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10분 만에 안전 조치했다.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층에 있던 관람객 98명과 직원 3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0대와 소방관 60여 명을 투입했으나 배연·안전 조치 작업만 벌였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추락사 남성 신원 사흘 만에 밝혀져

광주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남성의 신원이 사흘 만에 밝혀졌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원 불상의 남성은 A(18) 군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의 소지품을 확인한 뒤 지문을 채취했으나 일치하는 대조 지문이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10대로 추측하고, 행적·실종자·가출자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해 사흘 만에 신원을 확인했다.

A 군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정류장에 내려 인근 아파트 11층에 홀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 농가 빈집·주차 차량 턴 20대 2명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농촌지역 빈집과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상습절도)로 박모(26)씨와 유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17일 사이 광주 광산구 동곡동 일대 농촌마을 빈집 6곳에서 귀금속과 통장, 현금(300만 원 상당)을 가져가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빈집과 주차 차량에서 2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신후배 사이인 이들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